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8호 【루계 제23180호】 주체99(2010)년 8월 16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윤기정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지역발전상 윅또르 바싸르긴단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외국손님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15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번영하는 **김일성**조선으로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5일 주장규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친선대표단, 사꾸가와 세이이찌 전국련락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엔도 노부아끼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여 만민의 높은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각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으로 군중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찾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이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보안부,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각지의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자

함경남도내 여러 단위에서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13일과 14일 함경남도내 여러 단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곽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류현식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표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방대한 능력확장공사를 몇개월사이에 훌륭히 끝낸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대상건설과 기술개조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소를 전망성있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드넓은 가스화공정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조선이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기업소 로동계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을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은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자원과 기술, 우리의 힘으로 주체적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총력량을 집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일을 실속있게 하여 가스화공정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며 메타놀생산공정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은 비료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통을 이어 생산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고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내달려 남은 건설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사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전투장마다에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남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생산자대중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창조적인 일본새를 가지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며 그 가지수를 늘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석탄생산에서 혁신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안고 떨쳐나선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나라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여러 탄광들에 나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석탄생산을 계속 늘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최근 몇해사이의 장마철석탄생산실적을 분석하고 모든 탄광들에서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발나무를 비롯한 자재들과 전차, 탄차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석탄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게 하고있다.

일군들의 진취적이며 전투적인 사업기풍에 고무된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탄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석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석탄생산의 앞장에는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2갱과 6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수시로 변하는 막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매일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근년간 석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풍곡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대표자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이밖에도 인포탄광, 회안탄광, 송남청년탄광들에서도 탄차들을 비롯한 설비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운반로선들을 보수정비함으로써 이미 캐낸 석탄이 제때에 저탄장으로 가닿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다가오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석탄증산으로 빛내일 불같은 일념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생산공정의 기술개건과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짜고들면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탄광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아래탄광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갱, 막장들에 깊이 들어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굴진속도를 끊임없이 높이며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이 더 빨리 진척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흑령탄광에서는 정보화를 실현하여 생산지휘성원들이 막장으로부터 운반계통에 이르기까지 실태를 환히 꿰들고 생산도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굴진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기술개조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8월에 들어와 강동탄광의 혁신갱 김치봉기본굴진소대와 혁신2갱의 최춘택기본굴진소대, 덕산탄광의 로천갱 윤성철기본굴진소대와 내동갱 신철남기본굴진소대를 비롯한 련합기업소 아래 탄광의 기본굴진소대들에서는 탄폭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구역들에 채탄장들을 빨리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 이미 꾸려놓은 공무기지들에서 뽐프와 권양기, 압축기, 전차와 탄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예비부속품들을 더 많이 가공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면서 굴진공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최근에 령남탄광에서는 정대이음기를 비롯한 굴진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소공구들과 장비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채탄장들을 넉넉히 마련하여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실현되면 그것을 모든 단위들에 제때에 소개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총공격전의 기세높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년간 공업생산액계획을 앞당겨 완수

굴지의 기계제작기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년간계획완수의 개가가 높이 울리였다. 올해에 들어와 위대한 장군님의 2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남다른 영광을 지닌 이곳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지난 7월말까지 년간 공업생산액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은 락원의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의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훨씬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지난 1월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보내줄 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기업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린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비상히 앙양된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년간계획완수의 지름길로 줄달음쳐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선군시대 락원의 8명 당원들을 배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곳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중요대상들에 현대적인 유압식굴착기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신포향주철직장, 열처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화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유압기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CNC화된 일터에서 일하는 자랑드높이 기술기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중요부속품들의 질을 한계단 끌어올리였다.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내달려온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기업소에서는 7월말까지 년간 유압식굴착기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능률높은 《장백》호굴착기를 새롭게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건설기계설계연구소를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은 비상한 탐구정신을 안고 짧은 기간에 굴착기설계와 기술준비를 완성하였다. 대형조기직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굴착기의 중요부속품생산에 새로운 가공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시제품생산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2.4분기에 들어와 모체공장에서 굴착기들의 생산조립전투가 줄기차게 벌어진 결과 수많은 지구장비들이 마련된것을 비롯하여 《장백》호굴착기의 계렬생산토대가 보다 강화되였다.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산소분리기생산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들은 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제를 훨씬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인민경제의 주체화실현에 기여할 성능높은 산소분리기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이 현장에 깊이 들어가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심화시켜나갔으며 생산자대중은 직장,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갔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의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중요대상설비생산의 더 큰 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길이 빛나라, 절세의 위인의 조국해방업적이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을 찾아서

8월 15일!

어느덧 65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누리에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더불어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조국해방의 날이다. 더우기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매일 낮, 매일 밤을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국해방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 나라 천만군민의 변함없는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서인가 뜻깊은 8월 15일 아침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사람들의 물결로 굽이쳐흘렀다.

항일의 나날 어버이수령님따라 피바다, 눈보라만리를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일당백군인들과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각계층 근로자들…

그들모두는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것은 그대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이 땅우에 수령님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맹세의 분출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의 정으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혈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전에 스승이였고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을 잃고 상실의 아픔을 누를길 없어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조국해방의 숭고한 뜻을 더욱 굳히신 위대한 수령님,

병환에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남만원정의 길에 새기시던 그이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때가 어머님과의 마지막작별이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새겨안던 잊을수 없는 그날에도 우리 수령님 조국해방의 숭고한 뜻으로 가슴 불태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생이신 김철주동지도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혈전의 길에서 잃으시였다. 삼촌이신 김형권동지와도 그 길에서 영리별하시였다.

소왕청유격구에서의 악전고투와 천교령의 눈보라, 두차례에 걸치는 힘겨운 북만원정, 반《민생단》투쟁,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로의 고난의 행군…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이 겪을수 있는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국해방이라는 하나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으며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조국해방!

이는 사대와 굴욕의 치욕스러운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의 항로를 따라 전진하는 새 조선의 탄생, 주체조선의 출현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인 동시에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이룩된 민족사적위업이다.

잊지 못할 그날의 환희로 하여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이다.

해방전에 태여나 일찍부터 어린 가슴에 슬픔과 고통만을 안고살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고 지금껏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온 대성구역 미산2동의 림찬규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떠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에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오늘 이렇게 손자를 데리고 아침일찍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대동강구역 소룡2동, 룡성구역 룡추1동에서 온 가두인민반원들을 비롯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려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해방덕에 류랑살이, 이국살이와 징병과 징용에 끌려갔던 온갖 수난자들이 고향에 돌아와 흩어졌던 일가친척들과 만나던 감격적인 상봉과 노예의 운명을 타고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눈물짓던 녀인들이 해방의 기쁨으로 잠 못 이루던 때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속에는 어느 한 중앙기관의 일군인 현성일동무도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이 있어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일군으로 성장할수 있었으며 저의 가정에도 행복이 꽃펴날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이 세상 어느 인민도 누릴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참다운 삶을 꽃피워온 우리 천만군민의 심정이 어찌 다를수 있으랴.

최첨단돌파의 거세찬 열풍속에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자랑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조선콤퓨터쎈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차넘치는 추억의 세계는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의 기치 더 높이 드시고 조국과 사회주의수호전에 용약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항일의 나날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인민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모진 고난과 시련, 뼈를 저미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가시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다시 뵈온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 군관 인혁, 김명호동무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이룩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이 땅에 줄기차게 흐르고있습니다.》

그렇다.

지난 고난의 시기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백두산눈보라와 강계의 눈보라를 휘몰아가시며 제국주의자들을 호되게 쳐갈기시고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이 더욱 빛나고 오늘과 같은 비약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 아니랴.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지난 2월, 다시 태여난 비날론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 이 비날론을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주체의 비날론이다,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솜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 비날론솜을 수령님께서 가지고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깊이 절감하지 않았던가.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더 잘 받들어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의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 내밀성있는 투쟁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가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결사의 의지로 온갖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승리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대고조격전장에서 더욱 빛내일것이며 그 위력으로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성국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로씨야련방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해방 65돐을 맞으며 보내는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단장이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로조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오룡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각하

나는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진보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8월 15일 평양

브라자빌

꽁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각하

나는 꽁고독립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꽁고공화국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8월 13일 평양

끼갈리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지지를 받아 르완다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다시 지니게 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8월 15일 평양

필승의 신념, 확고한 의지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원한 승리의 8월을 긍지높이 구가하는 선군시대의 찬가는 단순한 추억의 분출만이 아니다.

이 시각 희천발전소건설장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울려퍼지는 노래 《신심드높이 가리라》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신심은 곧 승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혁명승리에 대한 이 나라 천만군민의 드높은 신심의 뿌리가 있어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과 더불어 8월의 의미가 더욱 빛난다.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주체의 한길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높은 선군조선의 신심,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마다 총대의 위력으로 승리떨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나온 승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이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격동적인 선군시대로 빛내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로씨야명배우단의 합동음악회 진행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로씨야명배우단의 합동음악회가 15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있었다.

군대와 국가간부들,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대표단 성원들,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음악회는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혼성2중창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 《매혹과 홈모》, 바이올린을 위한 음악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녀성중창 《내 마음 즐거워라》, 남성저음독창 《영광의 땅 보천보》, 녀성중창 《준마처녀》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왈쯔음악 《가을의 꿈》, 남성고음독창 《하늘을 바라보며》, 녀성고음독창 《백만송이 장미꽃》, 남성중음독창과 방창 《두루미떼》, 녀성5중창 《아추위, 추위여》 등 로씨야가요들, 세계명곡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두 나라의 이름있는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여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년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로씨야인민의 감정과 정서를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선률에 담아 형상한 종목들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조로친선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진행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음악회는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로 끝났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회상기학습을 심화시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이 백두밀림에서 타오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꾸준히 하여 모두가 회상기에 담겨진 내용을 환히 알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탄광의 어느 한 굴진소대막장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즉시 막장으로 달려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실효모임을 진행하였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3일동안에 100개의 작탄을 기어이 만들어낸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현장에서 진행된 회상기학습의 실효는 컸다. 굴진공들의 앙양된 기세와 혁신적인 투쟁에 의해 난관은 극복되고 막장에서는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당대표자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금속공업부문의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들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상반년에 이어 7월에도 중요지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철과 강선의 로동계급, 재령, 은률의 광부들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더욱 분발하여 날에날마다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철강재증산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더 높은 선철생산성과로 당대표자회를 맞이할 일념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2호용광로의 만부하를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가고있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하게 벌려 요즘 매일 선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소결1, 2직장의 로동자들은 정광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7월에 이어 8월에도 소결광생산량을 훨씬 늘이고있다. 강철2직장의 로동자들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철강재증산성과로 맞이할 충천한 기세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강선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상반년과 7월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생산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초고전력전기로의 용해공들을 비롯한 1강철직장의 로동자들은 교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 교대별, 로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압연부문의 여러 직장들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단조품소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있다. 보산제철소의 로동자들은 기술개건과 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조건에서도 회전로들의 정비보수를 예견성있게 진행하여 주체철생산량을 늘여나가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기술개건된 초고전력전기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은 강철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로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주체철생산을 맡은 직장의 로동자들도 련관단위 직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설비들의 정비보수를 예견성있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데 증산의 큰 예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술혁신투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날마다 주체철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은 철광석생산기지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속에서도 현행생산에 힘을 넣고 박토처리를 앞세워나가고있다. 로천분광산 8월광구의 광부들은 생산조건이 유리한 채굴계단들에 대형굴착기와 회전식착정기들을 집중배치하여 쇠돌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2파쇄갱의 로동자들도 대형력형파쇄기와 원추형파쇄기를 비롯한 중요설비들에 만가동을 걸어 선광장들에 필요한 쇠돌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2선광직장을 비롯하여 선광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고 그 가동률을 높여 정광생산을 늘이고있다.

올해에 매달 맡겨진 철광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은률광산과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은률광산에서는 박토처리에 힘을 넣어 드넓은 채광장을 마련해놓은데 맞게 철광석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고있다. 청년광구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굴진을 앞세우고 앞선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으며 증산광구의 광부들도 소대별, 교대별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재령광산의 로동계급도 총공세의 불길높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광산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착정기를 비롯한 채굴설비들과 운수수단, 로력을 집중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기본채굴장에서 철광석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승리광구의 광부들이 채굴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정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가동률을 높이고있으며 금산광구와 박토직장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박토처리를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나라의 강철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정신력발동의 불씨가 될 때

금야청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금야청년탄광의 생산능력확장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대형굴착기를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박토처리능력을 종전에 비해 1.5배이상 높이였으며 석탄운반선 및 저탄장건축공사도 기본적으로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생산능력확장문제를 놓고 탄광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아직은 그를 위한 대책과 조건보장이 따라서지 않은 때여서 파연반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석탄생산능력을 높일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전에 바로 그것이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우리가 무조건 차지하여야 할 전선이라고 생각하자.

지배인과 초급당비서의 뜨거운 호소는 협의회에 참가한 탄광일군들의 흉벽을 쾅쾅 두드렸다. 진지한 협의끝에 일군들은 탄광의 현 조건에서 박토처리 및 운반능력을 높이는것을 기본고리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문제해결의 근본방도가 있다. 이것을 명심한 탄광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정치사업의 드센 불바람을 일으켜나갔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발동되고 선전선동수단들이 동원된 가운데 탄광의 종업원모두를 생산능력확장공사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 계기와 정황에 맞게 격식없이 벌어졌다.

각성된 대중의 창조적지혜는 무궁무진한 법이다. 누구나 다 자기 일터에서 석탄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방도를 찾아냈고 한가지이상의 일감을 맡아안았다. 그런 속에서 박토처리능력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기직장의 소대장 장봉우동무가 창안하고 손정우동무를 비롯한 직장일군들의 도움밑에 짧은 기간에 탄광실정에 맞게 개조된 주파수변환기는 대형굴착기에 도입되자마자 작업회전주기를 종전의 절반이상으로 줄일수 있게 하였다.

박토직장의 로동자들은 또 그들대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중형굴착기와 대형굴착기를 배합한 새로운 박토처리방법을 창안도입하여 박토처리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에 의하여 탄광의 석탄생산에서 첫 공정이며 제일 걸린 문제였던 박토처리능력을 종전에 비하여 1.5배이상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을 위훈에로 떠미는 귀중한 불씨로 된다.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석탄운반선 및 저탄장건설공사과정은 그에 대한 좋은 실례로 된다.

초기의 설계에 따르면 방대한 작업량과 함께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문제 등으로 공사기일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진 부지배인 박창환동무는 건축공사를 무조건 제기일에 끝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사색을 이어나갔다.

시공을 맡은 정원범, 박문건동무들과 지혜를 합쳐 얼마후 부지배인이 내놓은 안은 탄광의 일군들은 물론 해당 부문 설계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운반로선을 예정했던대로가 아니라 로천채굴장을 가로질러 뽑는것으로만도 박토처리량을 절반이상으로 줄일수 있었고 저탄장의 수십개의 콩크리트기둥들도 탄광의 어느 한 곳에 있던것을 통채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많은 세멘트와 철근을 절약할수 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이 사색과 심혈을 바쳐 내놓은 혁신적인 안은 탄광로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정신력은 공사장의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안아왔다.

짧은 기간에 기본로선구간에 대한 방대한 량의 절토 및 성토작업과 기둥기초콩크리트치기가 끝났으며 또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지상에서의 기둥콩크리트치기와 전반적구간의 기둥세우기작업이 마무리되였다.

기본건축작업이 완공단계에 들어서는것과 동시에 공무분공장에서의 설비 및 장치물제작전투도 고조를 이루어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과 장치물들이 하나하나 완성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제끼고 청춘기를 펼쳐가는 금야탄전의 자랑찬 현실은 일군들이 송풍기가 되여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당창건 65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기관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에서— 신충혁 찍음

청진철도국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중요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수송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정형을 분석해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짐원천을 확보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집중과 분산수송을 합리적으로 배합해나간것이다. 수송지휘처의 일군들은 매달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예견하여 수송조직을 짜고들고있다. 지난 6월 어느날, 수송지휘처에서는 중요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리였다.

집중수송렬차들을 어떤 방법으로 원만히 운행하겠는가, 긴급화물수송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화차회귀일수를 줄일수 있겠는가 등이 기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수송현장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짐임자들과의 련계밑에 짐을 제때에 싣기 위한 준비작업을 앞세우면서 집중수송과 분산수송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물동량이 집중되여있는 지역들에는 앞질러가며 화차들을 배차하고 물동량이 널려있는 지역들에는 예견성있게 화차들을 분산적으로 배차하면서 렬차를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집중수송렬차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성능이 좋은 기관차들을 배차하도록 하였으며 전차선이 없는 구간들에는 내연기관차를 보내여 차갈이를 기동적으로 하게 하였다.

이곳 사령원들은 철길로반 상태에 대하여 미리미리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업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집중수송렬차들이 거침없이 목적지까지 달리게 함으로써 화차회귀일수를 훨씬 줄이게 하였다. 청진철도국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오늘도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고있다.

강명근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녕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터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넘쳐 수행하여온 녕원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8월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평균 수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발전기의 효률을 끊임없이 높여 적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시여 전설적인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전력증산성과로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증산성과로 빛내여갈 한마음안고 올해에 들어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며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옥외변전소공사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전력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운영작업반원들이 충천한 기세로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상반년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운영1작업반과 3작업반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유성일, 정룡하동무를 비롯한 조작공, 운전공들이 날씨조건에 맞게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기를 더 생산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운영4작업반과 2작업반원들도 발전설비들에 대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여 날에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증산에 한몫 단단히 기여하고있다. 책임기사 한영철동무는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로운 조속기를 도입하였으며 정일평동무는 콤퓨터를 리용하여 발전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보수작업반의 기능공들도 발전기의 이상요소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해명하여 퇴치하였으며 여러대의 차단기와 압축기, 뽐프들을 책임적으로 수리정비하였다.

발전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높은 수압에도 수문들이 정상동작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송변전설비들의 설치작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옥외변전소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였다.

시추작업반과 공무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답게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할 한마음안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지금 녕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안고 발전기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이미 선포한대로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미제호전광들과 리명박역적패당이 강행한 조선동해와 서해에서의 도발적인 해상합동훈련은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전면전쟁연습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벌써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기동전개한 상태에 있으며 중부 태평양계선과 미국본토에는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하게 될 륙, 해, 공군작전집단들이 출전태세를 갖추고있다.

남조선지역에서는 괴뢰들의 현역 및 예비역무력은 물론 지방의 괴뢰행정기관들과 민간업체들까지 이번 연습에 총동원된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류례없는 날조소동, 모략소동으로 일관된 분별없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의 첫단계라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비롯한 전쟁연습소동은 본격적인 군사적침공을 노린 실제적인 행동단계이다.

그것은 《방어》의 외피를 쓰고 벌리는 이번 전쟁연습소동이 우리를 목표로 삼고 감행되는 호전적이며 로골적인 북침전쟁연습이기때문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이번 연습소동이 동원되는 수단과 력량의 규모,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부인할수 없는 반공화국전면전쟁연습이며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온 오바마미행정부의 《핵없는 세계》건설구상이나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한갖 위선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추종하여 놀아대는 리명박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특대형범죄를 그대로 밝혀주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리는 무모한 전쟁도발소동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노린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이 극한계선에 이른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결심하고 내외에 선포한대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게 될것이다.

우리가 단행하는 군사적대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호된 징벌이다.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열이 오른 머리를 식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천명한 우리의 단호한 결심과 엄숙한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리명박역적패당은 조만간 사대매국노로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잘못 선택한 정책적결단으로 부질없는 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호전광들은 자멸의 무덤속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빠져들게 될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15일
평양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김진명 찍음

풀씨가 앉기 전에

평원군 화진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경쟁적으로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농장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풀베기전투장에 남먼저 뛰여든 농장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풀을 베고 운반도 하면서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다. 농장원들모두가 일군들의 뒤를 따르고있다. 제2, 8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많은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본사기자

이들처럼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자

황주군농기계작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 최근년간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그 전기로 각종 설비들을 돌려 수많은 농기계부속품과 보습을 생산하였으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수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제힘을 믿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성공의 열쇠를 찾아낼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용연료생산과 리용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만드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이 찾은 경험이다.

두해전 1월초였다. 공동사설을 흥분속에 받아안은 작업소일군들은 농기계부속품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놓고 무릎을 마주하였다. 토의해볼수록 조건은 좋았다.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진것은 물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린 결과 생산능력도 훨씬 높아졌던것이다. 그런데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우에 제기하여 전기문제만 해결한다면 지난해보다 생산을 1.5배로 늘일수 있다는 안을 놓고 론의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지배인의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전기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그는 필요한 전기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나라에 보탬을 주는 단위가 될수 있다고, 모두가 애국의 마음안고 강성대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동차도 대용연료로 뛰는데 그 동력으로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수 있다는 안을 내놓고 기술자들의 협의회에 상정시켰다. 이 발기는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기술자들이 주인이 되여 분발해나서자 론의점으로 제기되였던 원료문제도 풀리였다. 강냉이산지인 군에 흔한 강냉이속을 리용하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도 손쉽게 많은 원료를 확보할수 있었던것이였다.

작업소에서는 4.15기술혁신돌격대에 기술일군들을 더 망라시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제작전투를 벌렸다. 폐기된 자동차기판을 리용하여 가스발생장치를 만들 계획에 따라 설계원 김종환동무가 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집체적지혜가 합쳐졌다. 결과 짧은 기간에 가스발생장치가 완성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며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집단의 힘이 제일이다.

모두가 이렇게 신심에 넘쳐 대담하게 달라붙은 결과 그처럼 어렵다던 발동발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전기를 생산하여 리용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것은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강냉이속을 리용하면 주변에 원료가 많아 유리하였지만 그 대신 가스발생장치수리정비에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했던것이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기술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석탄을 원료로 리용하자는 합의를 보게 되였다. 해마다 자체탄광에서 생산보장되는 석탄의 적은 량을 가지고도 충분한데다가 알탄성형기도 있었다. 작업소에서는 여기에 맞게 가스발생장치를 다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게 되였다. 이 전기로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한두대의 설비들을 가동시킬수 있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밑에 달라붙어야 계속 전진할수 있다. 올해공동사설을 흥분속에 받아안은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면 작업소안의 모든 설비들에 만가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용접기, 선반 등 많은 설비들을 다 돌리자면 전기를 더 생산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를 풀자면 여러대의 가스발생장치, 발동발전기 등 설비들을 더 해결해야 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문제를 이렇게 본 지배인은 협의회에서 절절하게 말하였다.

《시작은 좋지만 만세를 부르기는 이릅니다. 저는 모든 설비들을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정상가동시키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이 발기를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만들어냈다. 그 보람은 컸다. 자동차수리작업반, 뜨락또르수리작업반, 가공작업반과 농기계작업반들에서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적극 리용하게 되였다. 전기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군들은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나갔다.

자동차에 대용연료를 리용할수 있게 개조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실리를 따져보며 사색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자동차에 대용연료를 쓰는 발동발전기를 설치하여 이동수리차로도 리용하면 경제적효과성이 아주 높을것이라는 안을 내놓았다. 참으로 기발한 착상이였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로 짐을 실어나르다가 포전에서 용접을 비롯한 작업이 제기될 때 발동발전기로 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쓸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작업소에서는 임의의 곳에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이 큰 은을 나타냈다. 올해 모내기철을 비롯하여 바쁜 농사철에 포전현장에 전개해놓은 이동수리차에서 선반을 돌리고 용접도 하면서 뜨락또르,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였다.

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담한 목표밑에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릴 때 놀라운 성과가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직업적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서

과학연구성과를 계속 확대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원학자들

함흥수리동력대학은 지난 기간 발전소들의 생산정상화와 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와 평가를 받은 단위이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학자들은 그날의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교수교양사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대학당조직에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종자를 똑바로 선정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능력있는 교원학자들을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내보내여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교원학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열중하게 하고 로학자들과 젊은 학자들과의 배합작전을 잘하여 짧은 기간에 연구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고있다. 대학에서는 전자도서관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교원학자들이 어느 때든지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열람하여 실천에 활용하게 하고있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학자들은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여러 건설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달려나가 공사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수리공학연구소 원사, 교수, 박사 서병화동무는 년로한 몸이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희천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자진하여 맡아 콩크리트부재에 의한 언제건설공법을 연구도입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질풍쳐내달리는 공사장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부학장 김충혁, 교원 리형욱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언제의 3차원설계를 비롯하여 물길굴과 조압수조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수리공학연구소 공훈과학자, 부교수 박히철동무와 정보쎈터 연구사 리광일, 리영훈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 나가 언제의 지지대응력해석을 3차원계산방법으로 진행하여 지지대의 영향을 재평가하고 세멘트와 모래 등 건설자재를 수많이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교원학자들은 금진강류역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수리동력계산, 언제안정성계산, 무넘이와 여수로의 수리모형실험을 비롯하여 함흥청년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실장 윤금철동무와 정보쎈터의 연구사들은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운영을 콤퓨터화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배전반의 현대화도 실현하였다.

간석지연구집단은 대형철그물돌자루에 의한 최종막이공법과 막이구간에서 세굴방지공법, 완성제방의 합리적인 단면결정 등 대계도간석지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리창주동무를 비롯한 교원학자들은 순천화력발전소의 기술자들과 함께 미분탄화실의 해당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앞선 연소기술을 받아들여 연소효률을 2%이상 높이였다. 그 기세로 린접증기에 의한 보이라예비가열과정을 해석하고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특성에 맞게 보이라기동방법을 연구도입하였다. 청진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에도 나가 미분탄버너의 설치각도와 가상원의 직경을 새롭게 수정하고 화염중심구역의 온도를 종전보다 높임으로써 보이라의 열효률을 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의 교원학자들은 대고조전투로 끓어번지는 여러 단위들에 뛰여들어 연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손세찬동무를 비롯한 교원학자들은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나가 보이라들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이라를 개조하여 연소효률을 종전보다 부쩍 높이고 증기생산량을 보다 끌어올렸으며 예비가열에 의한 보이라기동방법을 연구도입하는 성과를 안아왔다. 한편 대학의 교원학자들은 개천—태성호물길과 평남관개물길을 오가면서 물량관측지점들에서 물관리를 과학화하여 랑비를 없앨수 있게 하였으며 여러 협동농장들에 한방향분산뿜개에 의한 분수식관수방법을 연구도입하였다.

동력연구집단은 어느 한 단위의 목재건조로를 기술적으로 개건하여 건조실수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많은 연료를 절약하게 하였다. 또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나가 용수노즐과 격판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콤퓨터모의시험을 진행하여 기둥식자선기에서 정광품위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성과가 클수록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학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굴지의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윤기정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일성**종합대학 명예교수 윤기정동지는 급성심장기능부전으로 주체99(2010)년 8월 13일 9시 30분에 8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태여나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유능한 녀성일군으로 자라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동지는 오랜 기간 국가경제기관과 교육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후대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동지는 당과 혁명앞에 세운 공로로 하여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윤기정동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윤기정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9(2010)년 8월 13일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신천고려약공장에서

지난해 년간계획을 9월중에 완수한 신천고려약공장에서 올해계획을 7월중에 끝내였다.

이들의 성과는 당창건 65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군안의 근로자들과 전국의 고려약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대고조의 운명이 놓여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의 성과는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의 앞채이다.

공장에 들어서면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상사업의 첫자리에도, 공장의 자재확보사업의 맨 앞장에도 일군들이 서있다는것이다.

수십가지의 대중약품, 필수약품생산을 위한 수백종의 약초확보계획이 적혀져있는 지배인 최웅성동무의 수첩갈피에는 종업원들의 생활형편이 구체적으로 올라있다.

지배인은 사업조직을 하나해도 그들의 생활상측면에까지 사려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올해에도 자기 지방에 없거나 적은 약초구입을 위해 전국의 여러곳을 다녀왔다. 강령과 옹진, 배천을 비롯한 황해남도는 물론이고 함경남도의 장진과 부전, 평안북도의 정주시와 신의주시 등 이들의 발자취가 어려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출장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배인은 멀리 가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당조직의 방조밑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출장중에 있거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달려나간 종업원들의 가정형편을 늘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군 하였다.

이 공장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책임진 일군의 자세문제이다.

고려약은 그 하나하나가 많은 약초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그런데 계획수행에 필요한 약초들이 자기 지방에 많지 않은 사정은 다른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로 하여금 약초의 긴박성을 항시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초급당일군인 윤덕진동무는 고려약생산의 선행공정인 약초확보사업을 행정일군에게 한한 사업으로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지난 6월 그는 한달분의 패독산과 1년분의 사물환에 들어가는 귀한 약초들을 자신이 직접 팔을 걷고나서서 해결해왔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기세를 한층 돋구어주었으며 공장이 올해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군안의 사람들은 이 공장종업원들을 가리켜 비상히 앙양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라고 말한다.

성과가 클수록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공장의 계획수행만이 아니라 고려약생산설비의 현대화 등에 박차를 가하는 이들의 사업실적은 일군들의 앞채에 대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군들이 공장의 운명을 당앞에 책임졌다는 자각을 지니고 단위의 혁명과업수행과 그 관철을 위한 송풍기적역할을 다해나갈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이 신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후대교육사업에 진심을

고풍군 방성중학교 교원 강명애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학생들을 실력있는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바친 그의 노력은 참으로 크다.

하나를 배워주어도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산지식이 되게 그는 늘 학생들속에 학습분위기를 세워가고있다. 특히 전공과목인 수학에서 학생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하도록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하루수업에 열정을 바치였고 실력이 낮은 한 학생을 위해 밤길을 걷는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학생의 실력은 교원의 자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질을 높이고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오늘도 그는 교원의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안상희

⁂ ⁂

금천군 월암중학교 교원 리명선동무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예로운 교단에 선 첫날부터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바쳐오고있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그는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하나를 가르쳐도 산지식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오고있다.

뿐만아니라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웅변글발표모임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열렬한 조국애와 투철한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그의 성실한 노력으로 맡은 학급은 언제나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으로 손꼽히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영길

교육조건을 훌륭히 마련

선천군 남천중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천군 남천중학교는 군적으로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소문이 났다.

학교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교원들의 자질을 계속 높이는것과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것이다.

교장 차창수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이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지리학습터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인식교양적효과성을 높이는데 실지 이바지할수 있도록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잘 꾸려져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험실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지리학습터의 콤퓨터화는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학교에서는 이를 위하여 평양의 어느 한 중학교를 여러번 오고가면서 앞선 경험을 배웠으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끝내 군적인 본보기로 꾸려놓았다.

이뿐이 아니였다.

콤퓨터실과 외국어시청각실도 손색없이 꾸려놓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의 기초를 습득하도록 하고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후대교육의 물질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쳐온 학교일군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조건을 꾸려놓는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콤퓨터소조, 물리소조, 문학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 등 다양한 소조활동도 활발히 벌려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면서도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도록 하고있다.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계발시키는 방법, 개별지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교육학적방법론을 찾도록 하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도 학교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군안의 책임일군들은 후대교육사업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구체적인 관심을 돌려 여러가지 교육설비들을 마련하여주었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니 뛰여난 학과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이 학교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차례에 걸쳐 글작품집을 올려 기쁨을 드리였고 전국적인 여러 경연들에서도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전철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로씨야련방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로씨야련방정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위원장들

회담진행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룡남무역상과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의 회담이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야련방대표단 성원들과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로씨야련방대표단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진정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이 1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련방정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혁명렬사릉에 진정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싸운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이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로씨야련방대표단과 대사관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진정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대표단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에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 성원들, 왈레리 쑤히닌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련방정부와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해방탑에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로씨야련방대표단과 대사관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이에 앞서 대사관성원들은 해주, 원산, 흥남에 있는 해방탑, 쏘련군추모탑, 렬사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로씨야련방대표단 도착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오룡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강계렬사릉과 청진렬사릉 준공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강계렬사릉과 청진렬사릉이 건설되였다.

렬사릉들에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륭성번영,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삶을 빛내인 렬사들과 공로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그들속에는 강기락, 로경두, 최종활, 최현, 김수길, 한택익, 최득선, 리용만, 문명봉, 남윤국, 리병호, 최민석, 유신숙을 비롯한 항일혁명렬사들과 반일애국렬사들,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 등이 있다.

준공식들이 15일에 진행되였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유가족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렬사릉에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박도춘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오수용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들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렬사릉이 준공됨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전사들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근로자들이 혁명적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렬사릉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렬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혁명적으로 일하며 유가족들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렬사릉을 돌아보았다.

중국청년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국청년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서기 주장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친선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세계정치가들과 인사들이 수많은 선물을 드리였다.

선물들마다에는 그분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심이 어려있다.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을 보면서 중조친선이 얼마나 뿌리깊은것인가를 깊이 느끼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김일성**동지청년운동사적교양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로씨야련방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이 15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성실한 로력혁신자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 건구작업반 반장 임대봉동무는 40년동안을 한직종에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로력혁신자이다.

그는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수십년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왔으며 작업반원모두를 유능한 기능공들로 키워 해마다 작업반앞에 맡겨진 건구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지난 기간 그는 20여건의 창의고안과 수십건의 앞선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로농통신원 김성철

로씨야련방대표단 귀국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윅또르 바싸르긴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대표단이 1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오룡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는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미국과의 《동맹》강화책동은 매국반역행위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그 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들은 미국상전에게 《천안》호사건이 《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느니, 《미국의 협조에 감사하다.》느니 하면서 갖은 아양을 다 떨다 못해 그 무슨 미국과의 《혈맹관계》가 《지금보다 강한적은 없었다.》고 줴쳐대고있다. 이런 구역질나는 수작들은 자주의식이란 꼬물만큼도 없고 외세가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매국역적들의 어이없는 넉두리에 불과하다. 저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천안》호침몰사건과 같은 반공화국모략극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에게 굴욕적인 《동맹》강화를 애걸하는 너절한 추태는 그야말로 사대매국의 극치이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이른바 《동맹》은 어디까지나 상전과 주구사이의 관계, 지배와 예속, 굴종관계를 벗어날수 없다. 그것이 《강화》되였다는것은 곧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이 심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침략과 지배는 미제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다.

수십년간에 달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남조선강점력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하면서도 파렴치하게 그 무슨 《동맹》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승냥이가 아무리 양가죽을 뒤집어써도 제 본성을 버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남조선을 영원히 손아귀에 틀어쥐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속심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최근 미국이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과의 《동맹》강화에 나서고있는것도 괴뢰들에게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조이고 저들의 대조선지배전략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 흉심의 발로이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영구적인 군사병참기지,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북침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현지에서 최대한 깡그리 강탈해내자는것이다. 미국지배층이 최근 남조선괴뢰들의 청탁을 들어주는척 하면서 《동맹》강화를 요란히 떠들어대는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미국의 대조선지배책동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맹목적인 대미추종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사대매국은 외세의존병에 걸린자들의 고유한 생리이다. 사람이 외세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자기것에 대한 자부심도 자존심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대신 굴종의식으로만 살아가는 속물이 되고만다.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민족은 하찮게 보고 외세만을 우상화하게 되며 종당에는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역적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사대매국이 민족의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준 피의 교훈이다.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치고 친미사대에 물젖어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자가 없지만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그들을 훨씬 릉가하는 특등매국노들이다. 외세와의 침략적인 《동맹》에만 매달려 남조선의 식민지적예속성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맨 앞장에서 해치는 반역자들이 바로 리명박일당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동맹관계회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미국에 소고기시장을 비롯한 인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모든것을 통채로 섬겨바친 역적패당은 최근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상전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시키였고 미핵항공모함전단을 끌어들여 련합해상훈련을 발광적으로 벌리였으며 반공화국제재에 나서달라고 빌붙는 망동을 부렸다. 한편 미국의 어려움을 도와주는것이 《동맹》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재파병과 대이란제재참가 등 미국의 강도적요구도 받아물었다. 결국 미국은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도 《동맹》강화를 구걸하는 괴뢰패당을 리용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일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그 무슨 《국격》을 높이고 남조선에 리득을 가져다주는것처럼 설교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친미사대매국정치가 인민들에게 가져다준것이란 온갖 치욕과 불행, 고통뿐이다. 괴뢰들이 미국에 구걸하여 실현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로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남조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세계의 면전에서 더욱 부각되게 되였다. 《동맹》의 간판밑에 미국에 반공화국제재를 구걸하다 상전이 던진 낚시에 걸린 남조선집권세력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이란제재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로써 이란과 거래하던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남조선경제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였다. 이것은 곧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무턱대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짖는 보수패당의 사대매국정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는 형편에 처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괴뢰들의 미국과의 《동맹》강화책동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는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군사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 함께 조선동해에서 대규모적인 련합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조선서해에서 또다시 대잠수함훈련을 벌려놓았다. 8월 16일부터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도 벌리게 된다. 괴뢰들은 이것이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과시하는것이라고 으시대고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오고있는것이란 북침핵전쟁의 위험이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의 련이은 강행을 청탁하는 괴뢰들을 핵전쟁도발의 돌격대로 적극 써먹으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보수패당이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필요하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오히려 조선반도의 정세불안과 긴장격화만을 초래하고있다고 괴뢰당국을 강하게 비난하는것은 이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피해를 입는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며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이다.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외세의 겨드랑이밑에 붙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으며 잔명을 부지하는 천하의 역적들이며 사대매국으로 겨레의 운명을 망치려드는 민족의 화근이다. 이런 무리를 그대로 둔다면 나라의 통일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것은 물론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가로막는 이런 매국반역의 무리는 지체없이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이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을 청산받게 될 날은 다가오고있다.

박 철 준

긴장격화를 증대시키는 불장난소동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있다. 최근 괴뢰호전광들은 16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전쟁연습에는 3만여명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군단, 함대, 비행단급이상의 지휘부 등 5만 6 000여명의 방대한 무력이 투입되게 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호전광들은 이번에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이며 《방어능력향상》을 위한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실로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2년전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바뀐 이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30여년동안 해마다 감행되였다.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실전능력과 전쟁에 대비한 남조선의 인적, 물적자원동원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하기 위한 위험한 불장난소동이다. 더우기 올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지난해와 달리 미국주도로 진행되게 된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보다 3배에 달하는 미제침략군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틀어쥐고 전례없이 방대한 침략무력을 해외에서 끌어들인 상태에서 벌리는 전쟁연습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것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의 목적이 남조선미국《동맹》을 강화하고 합동무력의 종합훈련과 지휘관들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광고하였다. 침략무력의 작전적전개와 타격훈련, 현지지휘관의 선택권한부여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해 필요한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핵선제타격능력과 각이한 전투정황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숙달완성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호전광들이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대규모인질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상하여 그 무슨 《인질구출작전계획》에 따르는 특공대훈련을 벌리려 하고있는것이다. 그 계획이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인질구출》이라는 명목밑에 우리측 지역에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특공대무력을 투입하는것이다.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가상정황을 연출하며 벌리는 이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을 과연 스쳐지날수 있겠는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끝없이 격화되고있다. 우리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소동은 규모와 침략적성격, 지속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 조선동해에서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비롯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 련합해상훈련이 벌어진데 이어 조선서해에서는 괴뢰군단독의 대잠수함훈련이 감행되였다. 그 화약내가 가셔지기도 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남조선전역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게 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서해에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또다시 들이밀려 하고있는것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죠지 워싱톤》호는 결코 한가히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다.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이 조선서해에 진입하는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는 말그대로 폭발직전에 이르고있다. 이 엄중한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증대시키는 진범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리명박패당의 날로 강화되고있는 전쟁불장난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증오심을 폭발시키고있다. 전쟁의 불뭉치를 들고 미친듯이 덤벼드는 미제와 괴뢰들을 선군의 총대로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세기적숙원을 성취하려는것이 바로 호전광들의 전쟁불장난소동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최 철 순

북남선언들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호소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측위원회가 15일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조국이 해방된지 65년이 되였지만 아직도 조선반도는 둘로 갈라져있으며 전쟁위험이 가셔지지 않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평화통일선언으로서 이를 리행하는 길에 그 해결방도가 있다고 호소문은 주장하였다.

호소문은 지금 이 땅우에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날로 고조되고있으며 이로인해 얻을것이란 민족의 재난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온갖 군사적적대행위는 즉시 중단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해 련대와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는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 《을사5조약》날조 105년이 되는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력사적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일제에 맞서싸운 항일렬사들의 자주독립정신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속에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애국선렬들의 뜻을 이어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기어이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자.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급히 실행해야 할 법적, 륜리적의무

일본의 사회활동가 기자회견에서 강조

일본의 사회활동가인 일본도시샤대학 교수 아사노 겡이찌가 13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올해는 일본의 패망 65년과 《일한합병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일한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을 무력으로 불법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징병살이와 강제로동, 일본군성노예를 강요하였으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일본의 패망 65년과 《일한합병조약》날조 100년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일제의 반인륜범죄피해자들의 증언모임에 참가하였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련행피해자들, 원자탄피해자들이 증언하는것을 보면서 일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절한 죄의식과 수치감을 느끼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는것마저도 거부하고있다.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늦출수록 후과는 커지게 된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시급히 실행해야 할 법적, 륜리적의무이다.

일본정부는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키였으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있다.

지금 일조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일본이 그릇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8.15를 맞게 될것이다.

일조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장내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이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물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조선인민에게 사죄하며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장래발전과 일조국교정상화실현,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길이다.

나는 앞으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실현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한나라당》 의원의 망언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9일 청년실업문제를 외곡한 《한나라당》패거리의 망언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리재오가 청년들을 대학졸업후 대기업에 곧바로 취직시키지 말아야 한다느니, 이를 립법화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발언을 하여 큰 물의를 빚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리명박《정부》의 반민중적악정으로 벼랑끝에 몰린 청년들을 두번다시 죽이는 망언이며 청년실업사태를 낳게 한 사회구조적문제를 외면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제2차 세계대전시기 부산에서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한 일제의 죄행 폭로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12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부산에서 비밀리에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이것은 7월 28일 일본에서 출판된 《륙군 노보리또연구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당시 실험에 참가하였던 연구원이 작성한 문서인 《구륙군 제9기술연구소(노보리또연구소) 제6연구반연구개요》를 통해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에 있던 비밀병기연구소인 노보리또연구소에서 세균무기를 제조하였다.

일제는 1944년 5월 부산에 있던 《조선총독부》가 축위생연구소주변의 일부 지역을 야외감염실험장소로 선정하고 여기에서 세균무기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당시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일제의 만행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과 일본의 그리스도교단체들이 13일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일본정부가 《한일합병조약》날조를 애써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당국이 과거 식민지지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강제징병 등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단체들은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조선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이 일본에 의한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고 일본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에 협력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단평 해괴한 《전쟁》

최근 괴뢰군부가 별안간 《욕설과의 전쟁》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온갖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괴뢰군내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것이 이 해괴한 《전쟁》의 목적이다. 이전에도 그러루한 놀음을 벌렸지만 효과가 없게 되자 이번에는 아예 《전쟁》수준으로 그 강도를 높여보자는것이다. 하지만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몽둥이규률이 지배하는 괴뢰군에서 《폭력근절》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것이 여론의 평이다.

력대로 괴뢰군부는 사병들을 사고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상급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욕설과 매질을 장려해왔다. 현재 괴뢰군내에서 실시되는 잔인한 기합종류만 해도 무려 60여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로 하여 괴뢰군은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락인된지 오래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고 개탄하겠는가.

자살과 탈영, 총기란사사건들이 그칠줄 모르고 지긋지긋한 괴뢰군살이를 모면하기 위한 군기피현상이 만연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이처럼 괴뢰군내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가혹한 인권침해행위때문이다.

바빠맞은 군부패거리들이 황급히 《욕설과의 전쟁》을 고안해내고 《폭력근절》을 떠들고있지만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고 폭력행사가 없이는 한시도 유지될수 없는 괴뢰군에서 그 결과는 뻔하다. 괴뢰군부의 《욕설과의 전쟁》이란 자갈을 심어 감자를 바라는 격의 부질없는 공상이다.

허 영 민

괴뢰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짓밟히는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광고하면서 《인권문제》가 어떻소 하며 우리를 헐뜯고있다. 하다면 과연 남조선에서 정말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있는가.

아니다. 오늘 남조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있는 인권의 불모지,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다. 그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녀성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녀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남조선녀성들이 법적, 사회적지위보장문제에서 가장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임금과 취업 등에서도 제일 큰 차별을 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그렇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녀성들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멸시와 천대, 차별과 폭행의 대상이 되여 고통당하고있다. 특히 녀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리명박《정권》의 출현이후 그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최근 남조선녀성들속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진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들을 구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있다. 그것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상습적인 강간폭행이 성행하고있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녀성들은 마음놓고 길을 다니지 못하고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목을 잡고 학교로 오가고있다고 한다. 사회의 실태가 이러하니 녀성들속에서 호신용수단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수많은 녀성들이 범죄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각종 방법들을 찾고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폭행범죄행위가 줄어들고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전에도 부산에서는 한 녀중학생이 릉욕,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시바삐 범죄자를 붙잡아야 할 경찰이 늦장을 부리여 사건해명이 지체되였고 이것은 각계의 비난을 자아냈다. 하기야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을 앞장에서 무시하며 짓밟고있는 경찰패거리들이 사건해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을수 없다는것은 뻔한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찰당국은 초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련행된 녀성에게 속옷을 벗을것을 강요하였고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해 투쟁에 나선 녀학생들의 옷을 찢고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검찰나부랭이들의 망동도 경찰패거리들과 다를바 없다. 올해에도 검찰당국은 어느 한 야당의 녀성《국회》의원을 구치소에 끌어다놓고 심한 성적모욕을 주고 그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박까지 하였다. 지난 4월 돈과 음주접대는 물론 불법적인 성접대까지 받아 물의를 일으킨 50여명의 전, 현직검사들의 추문사건도 그자들의 도덕적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녀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망나니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못된짓을 일삼고있으니 남조선녀성들이 어찌 성폭력범죄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어린이출생률이 계속 줄어들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도, 수많은 녀성들이 빚단련에 시달리다 못해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가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는것도 다 현 집권세력의 비인간적인 녀성천시정책에 기인된다.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녀성들은 언제가도 불행과 치욕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복 은 희

파렴치한 침략자의 날강도행위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한일합병조약》이 일제가 강제적으로 날조하여 세상에 공포한 완전한 협잡문서라는 자료가 공개되여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같은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이 밝혀진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이 문서들은 물론 리완용을 《협정》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칙유》, 《합병조약》체결을 량국이 동시발표한다는 내용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 등 4종의 문서의 필체가 모두 한사람의것이라는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한 부분에 《통감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여있는 사실은 《한일합병조약》과 련관문서들의 작성에 리조봉건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쌍방이 각기 작성해야 할 조약문을 《조선통감부》가 일방적으로 날조해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공개된 《각의제출안목록》에 《한일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것도 리조봉건정부가 일제에 의해 내각회의마저 무시당한채 일제에게 《합병》을 강요당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번에 군사적위협과 강압 등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력사적사실과 증거들이 또다시 드러난것은 지금까지 그 무슨 《적법성》과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극악한 력사위조, 사실외곡의 왕초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죄악에 찬 일제의 침략력사를 파렴치하게 외곡하고 교활하게 미화, 은폐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고있다. 지난 7월 28일 1 000여명에 달하는 남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100년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이며 일본당국과 수상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죄담화를 발표할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불법적인 조선강점력사를 바로잡고 그에 정당한 평가를 내리려는 남조선과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들의 공동의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일본《력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력사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미마나미야께》설)을 페기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력사공동연구위원회》보고서에서 일본의 력사학자들은 《〈임나일본부〉를 군사적성격으로 보거나 정치기관으로 보는 견해는 부인되고있으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벼농사와 금속문화가 조선반도로부터 전해졌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한다.

일제는 가야국이 멸망하면서 력사기록들이 많이 인멸된것을 기화로 4세기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야마또조정》의 《일본군》이 조선남부의 가야지방을 차지하고 수백년간이나 《지배》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임나일본부》설을 조작해냈다. 저들의 조선침략, 대륙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꾸며낸 《임나일본부》설은 그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데 리용되였다.

일제가 마치도 가야국이 저들의 식민지였던것처럼 력사를 외곡날조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려고 꾀하였지만 《임나일본부》설은 그 조작경위와 허황성, 비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배격을 받은것은 물론 일본학계에서조차 의문을 자아냈다. 그러나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임나일본부》설을 집요하게 들고나왔으며 력사교과서 등에서 《야마또정권이 조선반도남부로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본이 고대의 조선반도에 임나라는 거점을 두었다.》는 식으로 《임나일본부》설을 계속 퍼뜨리고있다. 이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로 하여금 일본민족이 천수백년전부터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민족을 통치한 《우월한 민족》이며 조선민족은 일찍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은 《렬등》민족이라는것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고 조선재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흉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불어대는 《독도령유권》주장 역시 력사외곡, 조선재침책동의 일환이다. 독도가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라는것은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고 공인된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들도 인정하고있는 문제이다. 지난 2008년에도 시마네대학의 한 명예교수는 론문을 발표하여 그해 2월 일본외무성이 출판한 《다께시마문제에 대한 리해를 위한 10가지 조항》이라는 소책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론박하면서 당국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허황성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독도는 로일전쟁(1904년—1905년)당시 일본이 강탈했다.》고 폭로했다. 일본에서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한 고문서들이 련이어 발견되는 속에 최근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을 부정하는 일본지도들이 여러장 발견되였다. 세종대학교의 한 일본인교수는 일본륙군참모국이 1877년에 제작한 《대일본전도》를 공개하였는데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제외되여있었으며 1899년 일본륙지측량부가 20만분의 1의 크기로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령토가 아닌것으로 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의 력사날조행위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하게 된것이 마치도 국교를 맺자는 일본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리조정부의 《무례한 태도》로 하여 발생한것으로 진실을 외곡하고 임진왜란을 침략이 아니라 그 무슨 《출병》으로 묘사하고있다. 일본당국이 문부과학성을 내세워 검정통과시킨 력사교과서들에는 과거 일제가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감행하였던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워버리다싶이 되여있으며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를 한것으로 씌여져있다. 세상에 이런 파렴치하고도 극악한 력사위조, 력사외곡의 왕초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조선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그 무슨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니 뭐니 하고 일본반동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그들의 침략력사외곡과 재침책동을 눈감아주는 친일매국행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과도 서슴없이 공모결탁하는 보수패당의 반민족적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 겨레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을 짓부셔버리자고 해도 침략자의 더러운 주구가 되여 민족을 반역하는 친일매국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65년전 이날 우리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는 력사적사변이 일어났다.

바로 이날 우리 인민은 항일대전의 승리와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주었다. 하기에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군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 혁명실천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20세기 20년대 후반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앙양되였다. 이것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운동이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력사의 새시대가 다가왔다는것을 예고해주었다.

하지만 당시 그 어느 나라 령도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판단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비범한 통찰력과 예지로 력사의 새시대가 다가왔다는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에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세계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은 20세기 인류앞에 새시대의 혁명사상의 탄생을 알리는 고고성이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개척되게 되였다.

새시대, 주체시대는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나가는 력사적시대이다.

력사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 천대와 멸시속에서 신음하던 인민들, 시대의 밑바닥에 깔려 몸부림치던 인민들은 비로소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게 되였다.

당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민족해방위업수행에서 남의 힘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선행리론가들은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위업은 종주국에서의 혁명승리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일부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종주국혁명이나 큰 나라에 기대를 걸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우리 나라 독립운동의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것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과 력사적인 다홍왜회의, 남호두회의, 남패자회의 등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밝히시고 그것을 시종일관 견지하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그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투쟁을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시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청원의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위와 봉기, 폭동 등의 방법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하여 그때마다 저지되고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현실은 이러한 방법으로써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 타격을 줄수 없으며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근본방도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으며 마침내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앙양시킨 20세기의 거대한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불길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우리 공화국창건이 선포되던 그때 세계지도에 기록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국가들의 수는 불과 20여개에 달하였다. 아프리카만 놓고보아도 독립국가는 한두개뿐이였다. 그런데 1950년대에 근 10개 나라가 독립국가의 대렬에 들어섰다. 1959년 1월 미국으로부터 90mile 떨어진 작은 섬나라인 꾸바에서 혁명이 승리한것은 라틴아메리카를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부르던 미국의 뺨을 호되게 후려친 충격적인 사변이였다.

1960년대는 그 어느 년대보다 자주독립의 물결이 세차게 굽이친 년대였다. 당시 아시아에서는 6개 나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4개 나라가 민족적독립을 선포하였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대륙에서는 30여개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에도 3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고 오세아주와 까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에서도 독립의 기발이 휘날렸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의 자주위업의 성격과 목적, 사명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세계혁명력량편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혁명력량편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에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로동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후비군으로 삼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력사적의의와 역할은 비상히 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성격, 그 투쟁대상과 동력, 혁명력량의 편성과 투쟁형태,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등 민족해방운동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꼽자면 끝이 없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하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능히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승리후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섰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인류자주위업의 력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졌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무분별한 핵무장화책동

일본반동들이 핵야망에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놀아대고있다.

최근 일본수상 간 나오또가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기념행사후 기자회견이라는것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핵억제력은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리유로 누구의 핵개발로 인해 《위협》이 조성되고있기때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일본이 《핵위협》을 받고있기때문에 《사전방지》를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핵으로 위협한단 말인가. 핵위협은 핵무기를 가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는 일본의 무분별한 핵야망으로부터 조성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위협》광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론리이다. 일본반동들은 극도의 핵야망에 들뜬나머지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명백히 하건대 일본의 무분별한 핵광증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핵억제력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설을 떠드는 리면에는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핵문제의 진상을 가리우고 그 막뒤에서 핵무장화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 반입,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국시로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허울에 불과한것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무장화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패망이후 일본의 력대 집권계층은 어느 한시도 핵야망을 버린적이 없었으며 이로부터 그들의 입에서는 핵무기보유를 합법화, 정책화하기 위한 망발들이 끊임없이 튀여나왔다. 《비핵3원칙》을 내놓은 전 일본수상 사또자체도 한쪽에서는 《비핵》타령을 외워대면서 다른쪽에서는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의 집권자들도 그런 이중적태도를 취하였다. 오늘에 와서 그것은 공공연한 《핵대국》타령으로 바뀌고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을 운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비핵3원칙》의 간판뒤에서 핵무장화책동을 끊임없이 추진하여왔다는것이다. 핵무장화는 일본의 변함없는 야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저들이 패한것이 군사력이 약한탓이라고 여기고있는 일본반동들은 핵무장화를 기어이 실현하여 패전의 복수를 하고 군국주의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체계적으로 핵관련기술과 시설들을 연구개발하고 플루토니움을 부단히 저축해왔다.

오늘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핵물질을 계속 저축하고있다.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숱한 핵무기를 제작, 보유할수 있는 모든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1950년대부터 핵운반을 위한 미싸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성능을 높여온 일본은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곡사포와 핵탄두를 적재할수 있는 전투기 등 각종 핵탄두운반수단들도 갖추어놓았다.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핵선제공격으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그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위협》과 핵무기의 《필요성》을 떠들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

일본의 핵무장화의 위험성은 현실성을 띠고있다.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일본주변지역을 벗어나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있는 사실을 놓고볼 때 더욱 그렇다.

세계는 날로 무분별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핵무장화책동에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이 핵무장화의 길로 계속 나가는것은 자멸의 길이다. 일본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무분별한 핵야망을 버려야 한다.

리 학 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공개토론회

카나다에서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공개토론회가 7월 25일 카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 등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변인은 토론에서 1950년 6월 25일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아직까지도 전쟁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로골화하고있는 미국을 단죄하면서 카나다사람들이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에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책동의 첫째가는 대상인바 그것은 조선이 1950년대에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 나라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이전에 그러한 패배를 맛본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무장관이 판문점에까지 나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줴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카나다사람들에게도 온 세계를 재더미로 만드는 도화선으로 될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천안》호사건을 날조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호를 침몰시켰다는 남조선괴뢰들의 주장의 허황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까밝혔다.

인류는 진실한 조사를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를 한사코 반대하고있는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이어 질의문답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결정서는 미국이 조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응해나서며 조선전쟁을 종식시킬것과 조선반도에서 온갖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결정서는 카나다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고온현상

몽골의 대부분지역에서 최근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다.

7월 24일현재 나라의 동부와 북부지역에서만도 기온이 36~39℃에 달하였다. 또한 남부지역의 고비사막에서는 며칠내에 기온이 40℃까지 오를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기상관측기관은 이러한 고온현상이 8월 25일까지 계속될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문제

세계적으로 물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최근 유엔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세계에서 8억 8400만명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5살미만의 어린이 약 150만명이 불결한 물과 위생시설에 의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레바논과 수리아인민의 위업을 지지

이란외무상 마누체흐르 머타키가 8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에 맞서나가는 레바논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만일 이스라엘당국이 레바논과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이란은 이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원조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이 8일 한 외교석상에서 레바논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감행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적들의 침공을 물리친 레바논인민의 투쟁은 정당방위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토지 정리

중국 산동성에서 2001년 이래 지금까지 1 194만무의 토지를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부침땅이 새로 생겨나 알곡생산이 늘어나게 되였다.

해군무력강화조치

이란에서 10일 미싸일과 어뢰를 탑재한 12척의 쾌속정이 해군에 보충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해군사령관은 시속이 약 130㎞인 이 쾌속정들이 나라의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기지를 두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원유, 천연가스 생산

수리아에서 올해 상반년에 6 990만bbl의 원유와 49억㎥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 9일 이 나라의 사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고무수출 증대

월남에서 올해 첫 7개월동안에 고무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부당한 압력은 문제 해결방도로 될수 없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위협과 공갈의 몽둥이를 휘두르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나라들을 질식시켜 이 나라들로 하여금 흰기를 들고 나앉게 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하는 부당한 압력과 강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인민을 굴복시킬수도 질식시킬수도 없다.

이란의 핵문제를 보자. 지난 6월 유엔안보리사회를 통하여 이란에 대한 4차제재를 강행한 미국은 대이란제재실시에 광분하고있다. 얼마전 이란의 휘발유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발전공간을 더욱더 좁힐것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제재법이 채택되였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단독제재에 그치지 않고 동맹국들을 통한 추가제재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유럽동맹과 오스트랄리아, 카나다의 일방적인 대이란제재에 이어 미국무성의 고위관리가 일본과 아랍추장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그에 대한 협력을 청탁한것은 미국의 대이란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가늠할수 있게 한다.

미국집권계층은 이란정부가 앞으로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고립이 심화될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선택안까지 가지고있다고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력과 위협에 맞서 자기의 평화적핵에네르기리용권리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려는 이란인민의 립장은 단호하고 강경하다.

이란대통령은 서방이 제재를 통하여 이란인민의 의지를 꺾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오산이라고 조소하였다.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동맹이 앞으로 보다 도수높은 대이란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란은 절대로 20%기준의 우라니움농축활동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총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인민은 적들을 단매에 쳐물리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제봉쇄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있다. 최근 이란정부는 앞으로 4년내에 하루 휘발유생산능력을 1억 7 000만L로 끌어올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실현되면 이란은 휘발유수출국으로 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서방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이란인민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강행하려 하는 추가제재책동은 일방주의적인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의 반대와 배격을 받고있다.

중국외교부는 미국과 유럽동맹이 취한 제재조치는 이란문제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라고 평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범위에서 벗어난 그 어떤 제재조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통하여 유엔안보리사회범위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방적 또는 집단적인 대이란제재조치를 접수할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과 유럽동맹의 대이란휘발유수출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상공회의소는 정부산하의 3개의 대기업체들이 이란에 대한 휘발유수출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속에서도 대이란추가제재리행문제와 관련하여 우려가 커가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제재조치실행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경제거래를 단절하다싶이 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피할수 없기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리행문제를 놓고 여러 나라들에서 반발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매개 나라에는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패권주의현훈증에 사로잡혀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부당한 압력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

본사기자

군사연습의 막뒤에서 벌어지는 대결

—2015년 중미는 태평양에서 격전을 벌릴수 있다.

이것은 《중국위협설》을 거들며 각종 토론회를 벌리고있는 미국회와 보수파인물들속에서 공개적으로 튀여나오고있는 소리이다.

지난해 미국대통령은 중국방문을 앞두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한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중미관계와 관련한 집권자들과 보수파들의 서로 엇갈린 견해들은 미국의 혼란된 대중국외교정책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

오늘의 정세는 중미관계가 대결의 양상을 띠고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중국과 미국이 빈번히 벌리고있는 군사연습은 그것을 투시하기에는 충분하다.

미국은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이후 조선반도주변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지난 7월에만도 미국은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연습에 동원된 무력은 지난 시기 진행한 이와 류사한 합동군사연습에 비해 10배이상에 달하였다. 미국은 년말까지 화약내풍기는 불장난을 계속 강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광증은 우리 나라를 겨냥한 새 전쟁도발책동인 동시에 여기에는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힘의 우세를 과시하려는 기도가 숨겨져있다.

서태평양상에서 미국이 해마다 1 800회가 넘는 각종 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최근 중국보도물에 의하면 미국방성은 오늘부터 남조선전역에서 진행되는 군사연습에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지역에서 군사적우위권을 과시하려는 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중국은 미국핵항공모함의 황해에서의 군사연습참가기도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92%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나라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고있다.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죠지 워싱톤》호의 투입은 국제적으로 전쟁개시의 의미로 통용되고있다. 그런것만큼 중국사람들의 우려를 무리라고 볼수 없다. 더우기 1 000㎞의 작전반경을 가진 《죠지 워싱톤》호의 훈련지로 되고있는 황해는 수도 베이징에서 약 500㎞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중요한 전략적 및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수역이다.

중국외교부가 미국이 중국측의 립장을 엄숙하고도 성실히 대할것을 촉구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보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과 가깝고 중국동해에 위치한 지역에서 항공공격으로부터의 수도방위를 가상한 대규모반항공훈련을 단행하였다.

중국의 군사연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중국은 8차례의 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광범한 여론은 이러한 연습이 조선반도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조치라고 평하고있다.

그 근거로 중국에서 진행되고있는 군사연습의 시기와 규모, 장소를 들고있다. 중국의 군사연습들은 시기적으로 볼때 지난 7월 조선동해에서 감행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련합해상훈련을 전후해 진행되였다. 미국은 군사연습이 중국의 해안이 아니라 조선반도해안에서 진행되는것만큼 중국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AP통신은 이번 군사연습을 중국에 대한 극히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는것은 중국의 바다와 하늘에 뜻을 둔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인민해방군 함대무력의 실탄사격훈련이 실시되였다.

군사훈련은 황해와 남해에서도 진행되였다. 산동성 제남군구는 항공병력과 장비의 원거리수송훈련을 벌렸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은 규모에서나 성격에 있어서 이례적측면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적견지에서 중국이 자부하고있는 신형장거리로케트포실탄사격, 적재능력이 50t에 달하는 최신중형수송차량을 리용한 장거리기동, 렬차를 통한 티베트에로의 전략물자수송은 처음으로 진행된 훈련이였다고 한다.

이번에 중국은 군사연습과 관련한 정보를 보도계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여기에도 《중국위협설》을 류포시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있는 미국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여론은 평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지배층은 중국의 군사비증강과 군사력강화에 촉각을 세우고있다. 그들은 중국의 군사력강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저들과 이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하여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군이 륙군과 함께 급속히 현대화되고 위력한 해상작전무력으로 발전하는데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증강되는 중국해군력에 대응해 군사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중국은 군사훈련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그것이 그 어느 나라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계에 보여주고 《중국위협설》이 부각되는것을 막으려 하고있다.

군사연습의 막뒤에서 벌어지고있는 중미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략적리해관계의 충돌로 중미관계에서 대립이 표면화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본사기자 배금희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일본에서 올해 6월말까지 국가채무가 총 904조 800억¥에 달하였다. 10일 이 나라 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7월 28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3월말에 끝난 2009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공식 등록된것만도 4만 4 210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올해 상반년에 무역적자가 245억€에 달하였다.

6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 올해 6월에 공업생산량이 그 전달에 비해 1.7% 줄어들었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5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 31일까지의 지난 한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7만 9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01147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